"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 가운데 신10:12-13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 떨며 공포심을 느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창조주 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 사내아이들을 살렸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모세도 출3:6에서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여 경외해야 할 상대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10:28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길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롬

12:2).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딤전2:4).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그 곳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히11:16).

그 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시1:2). 더불어서 그 길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히10:20).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요14:6).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6장에서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요일4:8)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일4:16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실 분 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 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목석에 불과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그 분을 섬기기 보다는 자신들이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6:13 말씀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기자도 시2:11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선포함으로 예배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딤전6:15-16 말씀에서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그 분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섯 번째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준수하다' '소중히 여겨 보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그 명령을 준수하여 그 분의 계명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15:22-23)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분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신6:25).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훈장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14:50) 그 명령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선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